

# 중국 동북 3성 지역의 한인 문학 활동\*

권영민\*\*

<目 次>	
I. 머리말	2. 개방화 시대의 한인 문학
II. 한인 문단의 형성과 그 변모	IV. 한인 문학의 성격
1. 한인 문단의 형성 과정	<부 록>
2. 문화혁명 시대의 한인 문단	(1) 조선족 문예활동 약사
3. 한인 문단의 부흥과 그 확대	(2) 중요 창작소설 작품목록
III. 한인 문학의 역사적 전개	(3) 중요 창작시 작품목록
1. 한인 문단 형성기의 문학	(4) 중요 창작희곡 작품목록

## I. 머리말

이 보고서는 중국 동북 지방의 길림성, 흑룡강성, 요녕성 등지에 집거하고 있는 한인들의 문학활동을 개괄적으로 정리하여 그 성격을 규정하여 보고자 하는 데에 목표를 둔다.

중국의 동북 3성으로 지칭되고 있는 이 지역은 백두산을 중심으로 두만강과 압록강으로 이어지는 우리 국토의 경계에 연접해 있으며, 일찍이 우리 민족의 생활 무대로 역사에 기록되어온 곳이다. 특히 이 지역에는 2백만에 가까운 한인들이 독자적인 생활 방식과 고유한 언어 풍습을 지키며 살아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민족자치구역으로 설정되어 그 문화적인 독자성이 크게 주목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중국 동북 3성 지역의 한인 문학활동의 의미가 우리 문학사에서 그 중요성을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일제 식민지 시대의 일이다. 1910년을 전후 한 시기부터 식민지 지배하에서의 탄압과 궁핍을 피하기 위해 만주 지방으로의 이민이 증가했고, 만주 지방에서의 새로운 생활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꾸준한 노력이 지속되는 가운데 한인들의 생활 무대가 점차 확대되었던 것

\* 이 연구는 통일원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 서울대, 국문학

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루어진 만주 지방의 한인 생활은 식민지 시대 문학의 또 다른 소재로 등장하여 많은 관심을 끌어모은 바 있다. 3·1 운동을 전후한 시기부터 김동인 혼진건 최서해 조명희 등의 소설 속에는 만주지방으로 떠나가는 가난한 농민들의 모습이 자주 등장하고 있으며, 김동환 주요한 박세영 등의 시에도 유랑민의 모습으로 형상화된 우리 동포들의 애환이 깃들여 있다.

그런데, 193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만주 지방의 한인 사회가 성장하자, 이 지방을 중심으로 하는 독자적인 문학활동의 기반이 만들어지게 된다. 1935년에 문학동인 「북향회(北鄉會)」가 만들어져 안수길, 모윤숙 등이 이를 기반으로 문학활동을 시작하게 되었고, 강경애, 박계주 등의 문인도 이곳에서 문학활동을 하게 된다. 염상섭, 유치환 등의 만주 이주, 만주 지방의 한인 신문인 「만선일보(滿鮮日報)」의 발간 등은 이러한 의욕을 더욱 북돋아 주었고, 일제 말기 윤동주의 등장으로 만주 지방의 한인 문학의 정신이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이같은 일제 식민지 시대의 민주 이민과 그 문학활동은 「재만조선시인집(在滿朝鮮詩人集)」(1942) 「싹트는 대지」(1942) 등의 몇몇 작품집을 그 성과로 남긴 채, 해방과 함께 그 존재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에 빠져버린 것이 사실이다. 만주에서 활동한 바 있는 염상섭, 안수길, 모윤숙 등이 모두 해방과 함께 귀국하였으며, 민족분단의 현실 속에서 만주지방도 중화인민공화국의 창건(1949)으로 인해 우리와 서로 교류할 수 없는 땅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 보고서는 1949년 이후 중국 동북 지방 3성에 남아 살고 있는 한인들의 문학 활동을 대상으로 삼고 있으므로, 문학활동의 사회적 배경에 대한 충분하지 못한 조사와 자료 미비의 한계를 처음부터 전제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중국 동북 3성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들의 문학 활동이 중국 공산당의 민족정책에 의해 어떤 방향으로 성격화하고 있으며, 어떠한 독자적인 요건을 확보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데에 더 많은 관심을 부여하고자 한다. 이러한 관심과 접근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를 중심으로 그 논의의 범위를 자연스럽게 규정하게 될 것이다.

첫째, 중국의 정치 사회적 변화가 한인들의 문학 활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하는 점을 한인문단의 형성과 그 확대 변화 과정을 검토함으

로써 어느정도 해명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둘째, 한인 문학 활동이 어떻게 민족적인 독자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민족의 정체성(正體性)에 대한 문학적 인식이 어떻게 그 형상성을 확보하고 있는가를 확인함으로써, 한국 현대문학의 한 범주로서 이민문학의 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세째, 중국 동북 3성의 한인들이 발표한 문학 작품에 대한 문헌적인 조사 를 통해 그 작품사적 규모를 확인하고, 그 실제적인 내용을 검토함으로써 우리 민족의 고유한 정서와 전통적인 문학양식이 어떻게 계승 발전해 오고 있는가를 설명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이와같은 세 가지 문제와 그 논의의 방향은 물론 중국의 한인 문학이 중국 현대문학의 전체적인 경향과도 맞물려 있으며, 중국의 정치 사회적 변화 를 또한 반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외면할 수는 없을 것이다.

## II. 한인 문단의 형성과 그 변모

### 1. 한인 문단의 형성 과정

중국에서의 한인 활동이 중국 공산당의 민족 정책에 의해 그 성격을 규제 받게 된 것은 1949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의 창건과 때를 같이한다. 중국공산당은 중국을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여러 민족 세력을 전체적으로 통치하면서도 그 독자적인 생존권을 인정하는 민족 정책을 실시하면서, 중국 동북 지방의 길림성 흑룡강성 요녕성 등의 3개 성에 살고 있는 한인들에게 '민족구역자치'를 허용하고 있다. 1952년 9월 3일 '연변조선족자치주'가 만들어졌으며, 비록 제한된 것이긴 하지만 한인 스스로가 자신들의 의사에 따라 구역 자치를 실시하고, 국어와 국문을 공용하게 된다. 이러한 노력은 이 지역의 한인들을 하나의 민족공동체로 집결시켜 놓을 수 있는 중대한 계기가 되었으며, 특히 국어 국문의 공용을 통해 그 독자적인 문학활동이 가능해지게 된 것이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창건과 함께 이루어진 '연변 조선족자치주'는 중국의 만주 지역에 널리 분산되어 있던 한인들의 생활 근거를 연길시에 집중시킬 수 있도록 하였고, 연길은 한인 문학활동의 중심지가 되기에 이른다. 1951년 4월 「연변문학예술계연합회 준비위원회」가 결성되어 문학 예술인들의 규

함을 주도하게 되자, 연변 지역에 거주하면서 문필활동을 해온 이욱(李旭) 김창걸(金昌杰) 등을 중심으로 김례삼 김태희 임효원 최수봉 황봉룡 최정연 백남표 김학철 김창석 등이 연길에 모여들게 된다. 그리고 이들의 힘으로 국문 문예지인 「연변문예」의 창간을 보게 되는 것이다. 이같은 준비과정의 결과로 1953년 7월에 드디어 제 1 차 연변문학예술 대표회의를 소집할 수 있게 되었으며, 「연변조선족자치주문학예술계연합회」의 창설을 정식으로 선포하게 된다. 더구나 이 해에 북경에서 개최된 전국문연 대표자대회(제 2 차대회)에 처음으로 한인 대표 15명을 파견하였고, 전국문연위원으로 한인 무용가 조득현(趙得賢)이 선출됨으로써 중국 문화 예술가의 대표기관에 한인대표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연변조선족자치주문학예술계연합회」(이하 「연변문연」으로 칭함)는 기관자격인 「연변문예」를 기반으로 창작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중국 공산당의 문예정책에 입각하여 그 창작방법을 고정시키기 위해 창작강좌를 개설하게 된다. 당시에 당의 정책에 따른 창작방법의 원칙은 창작에서 부정적 인물의 제거, 호풍(胡風) 비판 등으로 이어졌고, 이러한 정책과 노선은 자연스럽게 문예의 좌경화를 유도하게 된다. 연변문연은 공산당이 요구하고 있는 창작의 방법과 노선을 지켜나가는 한편, 새로운 문인들의 육성에도 힘을 기울여 이근전 김철 김성희 윤광주 등의 신진작가를 배출하면서 더욱 풍성한 문학적 성과를 거두게 되는 것이다.

1956년에는 연변문연의 조직이 중국 작가협회와 직접 연계를 갖게 된 해이다. 이 해에 아동문학의 창작기반을 확장할 수 있게 된 「연변소년」이 간행되었으며, 중국의 소수민족지구에서는 처음으로 중국작가협회 연변분회가 조직된 것이다. 작가협회 연변분회에는 연변문연의 문인들이 대부분 가담하게 되었는데, 그 조직의 산하에 창작위원회, 구전문학위원회, 번역위원회, 간행물위원회를 두게 되어 문예활동의 조직적인 실천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연변분회는 1957년 1월 기관지 「아리랑」을 간행하고 그 창작 기반을 더욱 확대한다. 특히 1957년 4월에 국문종합지 「장백산」의 창간, 「연변예술학교」의 개교 등은 모두 연변분회의 조직과 함께 문학의 사회적인 기반 조성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기록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중국 동북 3성의 한인 문단은 「연변문연」에서 「중국 작가협회 연변분회」의 결성으로 이어지는 조직의 정비를 통해 한인 문학의 가능성은 열어놓게 된 셈이다.

## 2. 문화혁명 시대의 한인 문단

「연변문연」을 중심으로 하는 한인들의 문학활동은 1950년대 말기의 중국 내부 정치운동의 영향을 적지 않게 받고 있다. 공산당의 이념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반우경(反右傾) 투쟁이라든지 지방민족주의를 청산해야 한다는 당의 정책에 따른 민족정풍운동 등은 한인문학의 발전에 장애가 되었다. 특히 중국 공산당 제8기 10차 전원회의 뒤에 이루어진 문예계의 수정주의 비판운동은 문학의 정치적 이념주의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도록 하였고, 계급투쟁의 방법으로서 문예의 기능이 강조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정치 상황의 변화는 1960년대에 접어들면서 더욱 악화되어, 1966년 5월부터 이후 10년 동안에 걸쳐 지속된 ‘문화대혁명’ 시대는 한인 문학의 수난기로 기록되고 있다. 문화 대혁명 시대에 한인 문학이 박해를 받게 된 이유는 두 가지 사실로 요약된다. 하나는 문예의 사상성에 대한 비판이며, 다른 하나는 민족주의적 경향에 대한 비판이다. 1966년 초부터 문화대혁명을 주도한 이른바 ‘4인방’은 문예 영역에서 반당적 요소와 반사회주의적 색채를 청산한다는 주장을 내건고, 비교적 자유주의적 성향을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되는 모든 문학 단체를 해체시키고, 많은 문인들을 투옥한 바 있다. ‘연변문연’을 중심으로 하는 한인 문예 단체들이 모두 해산되었고, 그 기관지들도 자연히 폐간되었으며, 김학철, 김철, 임효원, 김례삼 등의 문인이 반동적인 문인으로 지목되어 곤욕을 치른 일도 있다.

문화대혁명 시기에 제기된 바 있는 ‘민족문화혈통론’은 중국 내의 소수 민족들이 자기 고유의 문화 전통을 유지하고 있는 것에 대한 탄압을 위해 제안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문화대혁명의 시대에 한인 문예 활동이 비판을 받게 된 것은 당의 이념이나 계급적 인식을 벗어나서 동일 민족, 동일 감정 동일 혈통을 내세워 민족문화 유산을 계승하고자 하는 것이 조국을 배반하고 봉건적인 자산 계급 민족주의를 추종하는 태도라고 규정한 데서 비롯된다. 한인들이 독자적인 생활권역을 가지고 자기 전통의 민족문화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은 모두 수정주의로 비판되었음은 물론이다. 그러므로 문화대혁명의 시기에는 민족정신이니 민족문화니 하는 것이 모두 문예영역의 금기 사항으로 지목되었던 것이다.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문화대혁명의 열기가 조금씩 저하되자, 문혁시대

의 문화정책에 대한 반성도 이루어지기 시작한다. 1974년에 「연변문예」의 복간이 허용되면서 어느 정도 창작의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 시기에도 여전히 기본적인 문학시대의 정책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문학의 정책 노선을 따르는 문학이 적지 않게 등장하게 되었음은 물론이다.

### 3. 한인 문단의 부흥과 그 확대

1976년 10월에 문화대혁명을 주도한 4인방의 실각에 이어 혁명운동이 종결되자, 중국은 새로운 근대화의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문예의 영역에서도 문화대혁명 시대의 규제와 탄압에서 벗어난 새로운 문예의 경향이 다시 소생하게 된다. 한인 문학 활동도 이와 함께 부흥의 시대를 맞이하게 된다.

연변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한인 작가들은 문학시대의 굴종과 타협에서 벗어나 새로운 민족문학의 건설을 목표로 하면서, 그동안의 좌경적 오류에 대한 비판을 통해 한인문단의 결속을 다지게 된다. 그 결과로, 민족문화협통론에 의해 부당하게 탄압된 민족문화운동의 정당성을 다시 천명하고, 창작의 권리를 박탈당한 문인들을 다시 문단에 모으게 되는 것이다. 1978년 10월 중국작가협회 연변분회가 재조직된 것은 단순한 문단 정비의 의미만이 아니라 한인 문단의 소생을 뜻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음을 물론이다. 더구나 1979년 2월에는 연변문학예술연구소(이 연구소는 오늘의 연변 사회과학원 문학예술연구소의 모태가 되었다)가 새로이 창립을 보게 되어, 연변 지역의 한인들의 문학 예술 활동을 학문적으로 정리 연구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이 연구소는 자체의 학술지인 「문학예술연구」를 간행하면서 그동안 쌓아온 한인 사회의 문학 예술 영역의 성과를 재평가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은 문학 예술에 대한 연구 작업은 중국 내의 한인 문화가 갖는 민족적인 고유성과 그 가치를 발견하고, 한인 사회 자체가 그 의미를 새롭게 재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계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문화대혁명의 대격변이 진정된 후에 이루어진 한인 문단의 재정비는 연변 조선족 자치주에서만이 아니라 길림성에서도 이루어져, 길림시 조선족 문학예술연구회가 창설되었고, 길림성 통화지구 조선족문화예술계연합회도 창립된다. 이런 조직들은 모두 한인 문화가 갖는 역사적인 의미를 새롭게 부각시키면서 민족문화의 전통을 시대와 상황에 적응하여 새로이 계승 발전시키는 조직 기반이 되고 있는 것이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인 문단은 새로운 신인들의 등장, 잡지 신문 등의 활동 무대 확대, 출판사를 통한 작품 보급의 증대 등을 이루면서 그 영역을 더욱 넓혀가고 있다.

우선 한인 문단의 조직 확대 사업은 1984년 12월 연길 문학청년동우회의 결성, 1985년 5월 연길시 청년시회의 조직 등으로 신인의 대거 등장을 피할 수 있게 된다. 연길 문학청년동우회는 김훈 최홍일 등을 중심으로 하는 젊은 문학인 20여명이 함께 조직한 단체로서 이 지역 한인 문학 활동에서 젊은 계층의 의식과 감성을 대변해 주고 있다. 청년시회의 경우에도 석화 김인선 등을 주축으로 하는 10여명의 신진 시인들이 모여 한인 문학의 새로운 정신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신인들의 등장으로 중국작가협회 연변분회의 회원은 문화대혁명 이전 100명을 넘지 못하던 숫자가 무려 300여명으로 증가된 바 있다. 특히 중국작가협회 총회의 회원으로 다음과 같은 한인 작가들이 30여명이나 참여함으로써 중국 문단에서의 한인 문학의 지위를 더욱 넓혀가고 있다고 할 것이다.

임효원 리홍규 김순기 정길운 최정연 최현숙 김 철 황봉룡 리근전  
 최 채 최형동 리성휘 김창길 조성일 김창석 김해진 정판룡 권 철  
 한수동 리상각 김성휘 김태갑 김 일 강정일 허해룡 리행복 임범송  
 서일권 김경석 류원무 림원춘 김용식(작고회원, 사현 리육)

——중국작가협회 총회 한인회원(문학과 예술, 1985. 3)——

한인 문학가들을 문학의 각 영역별로 구분해 보면, 시인으로 김철 김성휘 림효원 리상각 김태갑 리삼월 김응준 김학 김동진 정철 김파 석화 등을 주목할 수 있다. 그리고 소설가로는 김학철 리근전 리원춘 류원부 서광역 고신일 등을 들 수 있다. 평론가로서는 정판룡 권철 임범송 서일권 최삼룡 등을 손꼽을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한인 문단의 구성원들이 다채로워지면서 연변을 위시한 각 지역별로 많은 문예 잡지가 등장하게 된다. 이를 나열해 보면 다음과 같다.

「문학과 예술」(연변문학예술연구소, 격월간, 1980년 창간)

「천지(天池)」(연변문연 기관지, 「연변문예」를 1985년에 개칭)

「도라지」(길림성 조선족 군중예술관, 격월간, 1979 창간)

- 「아리랑」(연변, 격월간, 1980년 창간)  
 「진달래」(북경, 번역문학지)  
 「장백산」(통화, 격월간, 1980년 창간)  
 「송화강」(할빈, 1960년 창간, 1980년 복간)  
 「갈매기」(심양, 격월간, 1982년 창간)  
 「장춘문예」(장춘)

이러한 잡지 이외에도 연변일보를 비롯한 신문과, 여러 출판사들이 한인 문학가들의 활동을 돋고 있다.

현재 중국작가협회 연변분회의 간부들은 다음과 같다.

#### 중국작가협회 연변분회

주석 : 김철(시인)

부주석 : 김순기(소설가), 김성희(시인), 최현숙(소설가), 팀효원(시인)

중국문학예술연합회 연변분회의 경우에는 고문에 정룡수, 부주석에는 리근전(소설가), 김태갑(시인), 정판룡(평론가), 연변대학교 부총장), 조성일(평론가) 등이 활동하고 있다. 최근 이들의 문학작품이 국내에도 소개되어 김파, 김학철, 이근전 등의 작품은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 Ⅲ. 한인 문학의 역사적 전개

#### 1. 한인 문단 형성기의 문학

중화인민공화국의 창건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중국 동북 3성 지역의 한인 문학은 크게 두 단계로 그 전개과정을 나누어 볼 수 있다. 첫단계의 경우는 중국의 창건 이후 문화대혁명의 시대에 이르는 17년 동안의 문학을 말하며, 둘째 단계는 문화대혁명의 격변기가 지난 후 개방화 시대에 접어든 1970년대 중반 이후의 문학을 말한다. 이러한 전개 과정을 좀더 세분한다면 문화혁명기의 문학을 추가할 수 있지만, 이 시기는 ‘민족문화협동론’에 대한 극렬한 비판으로 인하여 실체적인 한인 문학이 존재하기 어려웠다는 점에서 하나의 시대 단위로 구분하기는 힘들 것이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의 창건은 중국 동북 지역에 살고 있던 한인들의 민족적 지위를 바꾸어 놓은 중요한 전환기가 되었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일이다. 일제 식민지 상황 속에서 조국을 떠났던 많은 한인들은 중국의 전국으로 인하여 결국은 한반도와 떨어졌고, 중국의 국민으로서의 대륙의 부수적인 지위를 얻게 된다. 1952년 민족구역자치를 실시함으로써 연변의 한인들이 의견상의 독립성과 자치성을 인정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은 중국이라는 커다란 국가 단위 안에서의 통치권의 영향을 벗어날 수 없는 한정된 것이라고 하겠다. 오히려 중국 국민화의 첫 단계에서 한인들은 한국의 국적을 잃게 된 것이며, 새로운 중국의 국민으로서의 자기 역할을 요구받게 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의 한인 문학은 한인의 민족적인 독자성과 중국이라는 거대한 국가 이념은 어떤 방향으로 조화시켜 나갈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최대의 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일제 식민지 시대에 단편적으로 제기된 바 있는 민족의 운명에 대한 세로운 인식은 더욱 내밀한 정서 영역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새로운 국가 건설의 현실 속에서 요구되는 새로운 사회에 대한 열망을 보다 적극적으로 펼쳐 보일 수 있는 문학이 요구되기에 이르는 것이다. 중국의 창건 이후 한인 문학이 다양한 경향으로 확대되기 시작한 것은 이같은 전반적인 시대적 분위기와 깊은 관련이 있다.

한인 문단의 형성과 그 새로운 문학적 경향을 가장 극명하게 제시하면서 발전해온 문학의 영역은 시문학이라고 할 것이다. 이미 일제시대부터 「제만 조선시인집」 등을 통해 그 역사적인 존재를 인정받아온 중국의 한인 시단은 리욱, 임효원, 설인, 김철, 김성휘, 윤광주, 리상각, 리삼월 등의 활약으로 1950년대 한인 문학의 주류를 형성한다. 이들이 내놓은 시적 성과는 합동시집인 「해란강」(1954), 「들끓는 변강」(1959), 「연변시집」(1964) 등을 통해 종합되고 있으며, 개인 시집으로 간행된 리욱의 「고향사람들」(1957), 「연변의 노래」(1957), 임효원의 「진달래꽃」(1957), 김철의 「변방의 마음」(1957), 「동방만리」(1958) 등이 민족의 감성과 새로운 시대의 이념을 시의 세계 속에서 통합시켜 보고자 하는 의욕을 드러낸다.

이같은 시단의 성과 중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나고 있는 특징은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는 민족적인 자기 정체의 확인 작업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만주

지방에서 계속되었던 항일 투쟁의 과정을 격렬한 어조로 노래한 「고향사람들」(리육), 「산촌의 어머니」(김칠) 등은 일제 침략에 항거하면서 민족적 삶의 의미를 끝까지 지탱하고자 노력하는 순박한 우리 민족의 의지를 잘 구현하고 있다. 민족의 동질성을 역사적 운명의 공동체적인식을 통해 확인시켜 나가고 있는 이러한 시적 작업은, 중국 대륙의 변방에 소수 민족으로 떨어져버린 한인 사회의 생명력을 복돋워주는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더구나, 이러한 역사 체험의 시적 형상화만이 아니라, 한인들만이 지니고 있는 향토적 정서와 토속적인 감흥이 시의 형식으로 그려진 경우도 적지 않다. 고향이나 조국에 대한 향수가 시적 소재로 등장하고 있는 작품이 초기의 문단 형성 단계에서부터 지속적으로 하나의 경향처럼 굳어진 것은 우리 말을 통해 시를 쓸 수 있다는 자긍심 이상의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로, 초기 문단 형성기에 등장한 시적 경향으로 주목되는 것은 새로운 국가 건설과 정치적 이념에 대한 시적인 낙관주의가 자리잡고 있다는 점이다. 연변 지역의 민족구역자치가 중국이라는 거대한 사회주의 국가 건설 과정에서 만들어진 독특한 민족 정책의 소산임을 생각한다면, 한인 시단의 시적인 경향이 그와 같은 사회적인 경향성을 외면할 수 없었으리라는 점은 자명한 사실이다. 김창석의 「열사비」(1962)가 보여주고 있는 모택동에 대한 친양, 김태갑의 「베를 짜는 복희」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 사회주의 국가 건설에 대한 희망과 친양 등은 모두 그러한 정치적 경향을 반영하고 있는 예에 속한다. 그러나, 이러한 이념적 경향은 한인 문학이 갖는 민족 고유의 감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한인 문학이 지켜온 형식적인 고유성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내세우기 위한 기존의 문학 형식에 대한 거부와 비판보다는 그 수용적 계승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세째로, 초기 단계에서 형성된 시적 경향이 지속적으로 한인 문학 전통 속에서 살아 있음이 주목된다. 특히 민족적인 정서의 시적 표현 문제는 80년대의 한인 시단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이는 결국 형성기의 시적 경향이 한인 문학의 민족적인 속성으로 인정되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한인 문단의 초창기 형성 단계에서 주목되는 소설 문학의 성과는 시의 경우와 유사하다. 이 시기의 문단에서 소설의 창작에 힘쓴 작가들은 김창걸, 김학철, 리근전, 리홍규, 백호연, 김순기, 최현숙, 현룡순, 윤금철, 안창욱 등을 지목할 수 있다. 이들은 새로운 국가 건설의 단계에 들어서 중국 사회를 배경으로, 급변하는 시대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능동적인 주인공을 그려보이고 있다. 이들이 내놓은 소설의 성과는 종합단편선집의 형식으로 간행된 「뿌리박은 터」(1953), 「세진이 벌」(1954), 「새 집 드는 날」(1954) 「봄날 이야기」(1962) 등이 중시된다. 그리고 김학철의 「해란강아 말하라」, 「번영」, 리근전의 「과일꽃 필 무렵」, 김창걸의 「새로운 마음」, 최현숙의 「나의 사랑」, 마상육의 「간호장」, 차룡순의 「약초 캐는 사람들」 등이 또한 문제성을 지닌 작품으로 평가된 바 있다.

초창기의 소설적 경향은 대체로 두 가지의 내용으로 구분된다. 하나는 식민지시대 항일투쟁을 소재로 하는 민족적인 색채를 강하게 드러내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사회주의 국가 건설과 새로운 이념의 정착 과정을 소설화한 것이다.

일제 석민지 시대 우리 민족의 비극적인 역사 체험과 끈질긴 항일 투쟁을 소설화시킨 작품은 김학철의 장편 「해란강아 말하라」가 대표적이다. 이 작품은 최근 국내에도 소개된 바 있거니와, 1930년대 간도 지방을 배경으로 전개된 우리 민족의 격동의 삶을 서사시적인 화폭으로 그려내고 있다. 간도 지방의 항일운동을 민족투쟁사의 차원에서 그려낸 이 작품은 심정적인 차원에서의 민족의식이 아니라 역사에 대한 자각을 바탕으로 하는 민족적 자기 인식을 심어준 것으로 손꼽힌다. 이러한 주제의식은 극작가 황봉룡의 「장백산의 아들」과 같은 작품에서 다시 새로운 문제 영역으로 확대된다. 「장백산의 아들」은 백두산 지역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1930년대의 항일 투쟁이 만주의 공산당 운동과 연계됨으로써 그 투쟁을 승리로 이끌어가게 되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새로운 중국의 건설에 동조해야 하는 한인 사회의 문제를 역사적인 차원에서부터 해명해 보고자 하는 작가 나름의 계산이 담겨 있는 셈이다.

연변 지역 한인 문단에서 본격적인 장편소설의 영역을 개척한 리근전의 「법바위」는 새로운 중국의 건설 과정을 격동의 현실을 통해 그려내고 있다. 이 소설은 일제의 퇴각과 함께 이루어진 중국 국민당과 공산당의 대결 양상

을 한인 부락이라는 특수한 무대 위에서 새로운 관점으로 재해석한 작품이다. 중국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계급의 대립과 이념의 갈등을 제3자적인 한인들의 관점으로 정리해 나가고 있는 이 소설에서 작가는 대지주의 계층을 이루고 있는 국민당의 세력과 이에 대응하고 있는 공산당의 계층을 구별해 놓고 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지주와 소작인의 관계에 놓여 있는 한인들을 등장시킨다. 공산당은 국민당의 세력과 한인 사회의 관계를 놓고 한인들이 모두 국민당의 세력에 결탁하고 있는 것으로 오해한다. 그러나 이러한 오해는 계급적 동질성의 회복이라는 하나의 주제의식에 의해 극복된다. 소작인의 처지에 놓여 있던 한인들이 결국은 공산당과 동조하여 새로운 중국의 건설을 위해 단합하게 되기 때문이다. 가난한 한인 사회의 농민 계층을 등장인물로 내세우면서도 민족적인 각성과 계급적 인식을 동시에 꾀하고 있는 이 소설은 대변혁의 시대에 역사의 추세에 따라 자기 이념의 변혁을 실천하는 중국의 한인들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는 셈이다.

## 2. 개방화 시대의 한인 문학

중국의 사회주의 국가 건설과 때를 같이하여 형성된 한인 문단이 1960년대 초반까지 일구어온 한인 문학의 성과는 민족의 고유성과 새로운 국가 이념을 통합시켜 나가는 노력으로 그 성격을 규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196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새로운 시련을 맞이하게 된다. 문화대혁명으로 일컬어지고 있는 중국 내부의 정치적 격동이 한인 사회의 민족적인 독자성과 그 자치성을 침각하게 위협했기 때문이다. 문화대혁명의 열풍은 1966년부터 10년동안 계속되었으며, 이 시기에 한인 문단은 민족의 독자성을 유지하고자 했던 모든 문학적인 노력이 반동적인 수정주의적 경향으로 비판되는 수난을 면할 수 없게 된다. 그 결과로 민족의식은 철저한 계급의식으로 전환될 것을 강요받게 되고, 민족적 정서는 사회주의적 이념으로 무장될 것을 요구받게 된다. 김학철, 김철, 김례삼, 김성휘, 임효원 등이 모두 반혁명분자로 지목되어 문필활동을 할 수 없게 되었고, 「장백산의 아들」과 같은 작품까지도 매국적인 투항주의의 독소를 담고 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된다.

그러나 문화대혁명은 1976년 10월로 그 종막을 고하게 되고, 중국 사회는 새로운 개방의 시대로 접어들게 된다. 중국의 한인 문단이 다시 소생하게

된 것은 이러한 문혁기간의 고통에 대한 끈질긴 인내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1970년대 후반부터 한인 문단은 민족적인 자기 감성을 바탕으로 한인 문학의 새로운 건설에 임하게 된다. 그 가장 큰 작업은 문단의 조직 확대, 신인 문학인의 대거 등장, 문단 활동의 기반이 되는 잡지 매체의 확충으로 요약되는데, 이에 대한 논의는 이미 앞장에서 전개한 바 있다.

중국사회가 개방화 시대에 돌입하는 동안, 한인 문학은 문화대명혁의 상처를 극복하고 그 정치주의적 과오를 청산하기 위한 자기 비판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우선 문학적 소재의 금지사항들이 사라지면서 과거 혁명기의 문학이 보여주었던 이념적 편협성과 개인숭배주의적인 경향에 대한 비판이 일어나게 된다. 문학은 사회주의적인 공식성이나 정치주의적인 이념의 요구에서 벗어나 어느 정도의 자유가 허용된 셈이며, 그 가치관의 다양성을 시도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연변 지역에 중심을 두었던 한인 문단이 통화, 길럼, 할빈, 장춘 등 까지로 확장되면서 지역적인 특성을 드러내고 있는 점도 특기할만한 일이다. 그리고, 이러한 개방화의 추세에 따라 문학이 보편적인 예술의 가치에 그 비중을 두는 새로운 심미적인 개안을 하게 된 점도 기억해 두어야 할 것이다.

개방 시대의 문학적 선구는 시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시적 정서의 다양성을 세로이 회복한 한인 문단의 시적 경향은 종합시선집의 형태로 진행된 「변강의 무지개」(1979), 「시선집」(1979), 「서정시집」(1982), 「봄바람」(1981) 등을 통해 그 다채로움을 자랑하게 된다. 그리고 개별적인 시인들의 창작은 김철 시집 「산향길」, 「내 고향의 금물결」, 「인간세상」, 김성휘 시집 「나리꽃 피었네」, 「들국화」, 「금잔디」, 임효원 시집 「어머니 품이여」, 「마음의 지평선」, 리욱 시집 「이육시선집」, 이상각 시집 「샘물이 흐른다」, 「사랑의 꽃바구니」, 리삼월시집 「황금가을」, 김태갑시집 「고향길」 김창석 시집 「꽃수레」, 김파 시집 「흰돛」 등을 통해 그 문학적 성과를 드러내게 된다.

이러한 시인들의 시적 경향은, 하나의 계급적 관념과 정치이념만을 고집했던 문화대혁명 시대의 규제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의 감정을 개성있게 드러내는 점이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 시인들의 시적인 경향을 시적 대상과 그 소재 영역에 따라 구분해 본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일상적인 생활 감정의 소박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여기에는 우리 민족이 지니고 있는 조국애와 향수가 저류를 이루고 있으며, 대자연의 아름다움에 대

한 꾸밈없는 느낌도 결들여 있다. 바로 이러한 개인적인 생활 감정의 표현은 한인 문학의 개성화 시대를 말해주는 근거가 되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이러한 개성화의 경향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는 오늘의 한인 문학에서도 여전히 항일투쟁의 역사를 시의 소재로 삼고 있는 작품이 적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중국의 한인들은 민족의 동질성에 대한 인식과 그 역사적 공동체로서의 운명에 대한 해석을 식민지적 조건에 연관하여 시도하고 있다. 항일투쟁의 과정 속에서 우리 민족의 공동체적인 자기 인식이 분명하게 자리잡을 수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김철의 「새별전」, 「동틀 무렵」, 김성휘의 「장벽산아 이야기하라」, 리육의 「풍운기」, 김성휘의 「소나무 한 그루」, 김응준의 「개척자」 등은 모두 장편 서사시의 형식을 지닌 방대한 규모의 작품들이다. 이들 작품은 서정시가 보여주는 개성화의 경향과는 달리, 민족 전체의 운명적인 삶을 역사의 현장에서 새롭게 파악하고자 하는 강렬한 민족의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조선시대 봉건 사회의 붕괴 과정에서 대두된 농민들의 자기 각성을, 치열한 농민봉기의 상황 속에서 그려내고 있는 김철의 「새별전」은 갑오농민혁명을 정점으로 하는 조선 말기의 격동의 시대를 민족의 정기와 그 신념에 의거하여 노래하고 있다. 김성휘의 「장백산아 이야기하라」는 백두산을 무대로 일제의 침략에 항거하던 우리 민족의 투쟁의 역사를 소재로 어린 주인공이 당당한 민족사의 주인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노래하고 있는 작품이다. 이 작품에서 시인이 획득하고 있는 시대적 전망은 물론 항일 투쟁에서의 승리와 찬란한 우리 민족의 세로운 역사의 전개이다. 김성휘의 「소나무 한 그루」, 김응준의 「개척자의 노래」 등은 역사적인 소재를 근거로 한 것이라기 보다는 시인의 생활 감정을 바탕으로 하여 엮어진 장시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장시의 출현이 시적인 주제의 확대와 심화를 가능하게 하고 있으며, 한인문단의 시적 경향에 더욱 커다란 세로운 가능성으로 남아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개방시대의 소설은 시의 경향이나 그 성과에서와 마찬가지로 정치적 이념의 도그마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이 돋보이고 있다. 사실주의적 전통의 회복으로 요약할 수 있는 70년대 후반 이후의 소설적 경향은 문화대혁명의 정치적인 과오에 대한 비판의식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다. 현실에 내재해 있는 불합리한 조건들에 대한 비판과 새로운 개혁 의지를 강조하는 가운데, 소설

은 인간의 운명과 그 본질에 대한 질문을 제기하기도 하고, 개인 생활의 일상적인 문제들을 사회 원리적인 차원에서 다시 정리하기도 한다.

이 시기의 대표적인 작품집은 임원춘의 「꽃노을」(1980), 「몽당치마」(1984) 김창걸의 「김창걸 단편집」(1982), 리옹의 「고향의 냄」(1984), 김학철의 「김학철 단편집」(1985), 정세봉의 「하고 싶던 말」(1985), 류원무의 「아, 꿀샘」(1985) 김관웅의 「소설가의 안해」(1985)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작품집에 수록된 단편소설들은 그 전체적인 경향이나 특징을 하나의 개념으로 규정하기는 힘들지만, 의견상으로 볼 때, 영웅적인 인물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소설집에 등장하고 있는 주인공들은 대부분 평범한 일상적인 인물들이며, 그들의 일상적인 생활 공간이 소설의 무대로 설정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주인공들의 삶은 영웅적인 주인공의 삶에서 확인할 수 있는 역사적인 의미를 크게 중요시하지 않는다. 개인의 삶에 내재해 있는 인간적인 행복이나 소박한 생활감정이 소설 줄거리의 주된 소재임은 당연한 일이다. 소설의 기법에 있어서도 스토리를 위주로 하던 서술방식에서 벗어나 장면화의 방법이나 상징적인 수법을 활용하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법의 인식이 단편소설의 문학성을 더욱 높여주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근래 한인 문단의 소설적 경향은 단편소설의 장르적 한계를 극복해 나가기 위한 장편소설의 등장과 더욱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특히 8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는 많은 작가들이 장편소설의 창작에 관심을 기울이며 주목할만한 대작들이 발표되고 있다. 류원무의 「숲속의 우등불」(1980) 한원국의 「잊을 수 없는 사람」(1981), 리원길의 「한 당원의 자살」(1985), 고신일의 「유정세월」(1985) 등이 중편형식이 요구하는 균형감각을 내세우는 동안, 윤일산의 「어둠을 뚫고」(1981), 리근전의 「고난의 연대」(1982), 김학철의 「격정시대」(1986), 윤일산의 「포효하는 목단강」(1986) 등의 장편소설이 발표되기에 이른다. 이 소설들은 우리 민족의 역사적인 삶을 소재로 한 것에서부터 젊은 세대의 새로운 윤리의식과 가치관을 다룬 것에까지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민족의 수난사에 대한 관심을 질게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 많다는 점이다. 「고난의 연대」와 「격정시대」는 근대화의 물결이 일기 시작한 19세기 경부터 우리 민족이 겪어야 했던 수난의 역사를 보여준다. 자전적인 요소가 강한 이 작품이 거두어 들이고 있는 최

대의 성과는 그 내용의 비극성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새로운 역사에 대한 갈망을 버리지 않고 있는 주인공의 건강한 삶에 대한 소설적 형상화라고 할 것이다. 특히 이러한 주인공의 관점을 통해 우리 민족사의 새로운 인식을 피하면서 미래에 대한 전망마저도 의도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할 수 있는 특징이다.

#### IV. 한인 문학의 성격—결론에 대신하여

중국 동북 지방의 3개성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한인 문학은 반세기에 가까운 역사적인 변화 과정을 거쳐오는 동안, 민족의식의 문학적 구현과 국가 사회적 이념에 대한 문학적 실천 사이에서 상당한 갈등을 겪어왔다. 특히 1960년대 후반부터 10여년을 두고 지속된 문화대혁명의 시기에는 민족문학의 고유성이나 독자성을 부정하는 혁명의 논리에 의해 적지 않은 정신적인 상처를 입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질곡 속에서도 중국의 한인문학은 민족문학으로서의 독자적인 요건을 꾸준히 확보해오고 있다. 우선 한인 문학은 중국문학의 테두리와는 아무 관계없는 한글을 그 표현매체로 이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인 문학의 독자성을 인정받고 있다. 민족 언어의 전통을 지켜 나가기 위한 문자 행위가 문학의 형식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할 경우, 이러한 특징은 한인 문학이 지니고 있는 민족문학의 요건을 인정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측면이라고 할 것이다. 더구나 한인 문학은 한인들의 민족적 동질성을 역사적으로 규정해 주면서 그 공동체적인 인식을 거듭 요구해 오고 있는 소재들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두고온 조국에 대한 향수를 노래하고 있는가 하면, 과거 만주지방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던 항일투쟁의 장면을 이야기하기도 한다. 이러한 체험은 중국 동북 지역에 민족구역 자치를 실행하면서 살고 있는 한인들의 공통적인 체험이며 의식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중국 내의 한인 문학이 중국 문학의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어떻게 그 성격을 규정받고 있는가 하는 문제는 간단히 답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여기에는 중국의 공산당이 지속해 오고 있는 민족 정책의 실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당의 문예정책과 그 문학적 실천 과정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이 요구되는 것이다. 이 보고서에서 이같은 문제를 모두 정리해

보기란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는 일단 중국 공산당이 민족구역자치를 내세워 한인 사회가 민족적 공동체로서의 독자성과 자치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중국 공산당은 민족구역자치의 영역 내에서 민족의 언어와 문자의 공용을 승인하고 있다. 물론 한글 교육만을 인정한 것은 아니며, 중국어의 교육과 학습은 당연한 과제로 대두되는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중국 공산당이 허용하고 있는 민족 언어의 사용은 결국 문학의 영역에도 그대로 통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의 한인 문학을 가능하게 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한인 문학이 비록 한글을 매체로 하고 있으며, 그 소재 내용이 민족의 공통적인 역사 체험에서 비롯된 것이 많다고 하더라도, 문학의 전반적인 경향과 추세는 중국 공산당이 내세우고 있는 사회주의 국가 전설의 이념을 결코 벗어나기 어려운 것이다. 중국의 문학에 대한 당의 정책과 요구는 한인 문학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며, 중국 공산당의 사회주의 문학 노선은 결코 벗어날 수 없는 기본 방향이 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한인 문학은 그 문학주체와 형식에서 볼 수 있는 민족적인 독자성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문학적 이념의 지표로 내세우게 되는 것이 사회주의 문학 노선임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달리 말한다면 중국 공산당이 민족자치주 내에서의 독자적인 문필 활동과 고유한 문학 형식을 인정하고 있긴 하지만, 그 문학의 이념적 지표는 무산계급의식과 그 문화적 성취라는 하나의 이념 체계 속에 묶어놓고 있다고 할 것이다.

결국, 중국의 민족구역자치 제도 아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한인 문학은 그 민족적인 속성에도 불구하고 중국 문학의 거대한 흐름 속에 끼어있는 소수민족의 독자적인 문예활동 정도로 인정되고 있는 셈이다.

중국에서의 한인 문학이 갖는 의미가 이러하다면, 우리 문학의 역사적 전통으로 볼 때 이것은 어떤 의미로 규정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 또한 그리 간단하게 규정될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우리 문학의 범주를 보다 크게 상정해 볼 수 있다면, 이같은 한인 문학의 속성은 ‘이민문학’으로서의 의미를 적극적으로 부여받을 수 있으리라 믿어진다. 중국 내의 한인문학은 한국인의 문화적인 습성과 중국의 정치 사회적인 여건이 서로 결합된 문학이기 때문에, 두 가지 문화권의 충돌을 통해 빛어진 것이다. 이러한 문화적 충돌은 한인 문학이 민족적 고유성을 더욱 완장하게 고

수할 수 있도록 만든 요인이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한인들의 문화적인 교양이 점차 중국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중국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한인 문학은 오늘의 우리 민족 문학 보다도 더욱 민족적인 고유성을 보여줄 수도 있고, 반대로 사회주의 국가 이념에 더욱 철저한 문학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이중적인 성격이야말로 ‘이민문학’이 갖는 운명이며, 이 운명적인 이중성을 어떤 방향으로 조화시키느냐에 이민문학으로서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할 것이다.

## 〈부 록〉

- (1) 조선족 문예활동 약사
- (2) 중요 창작소설 작품 목록
- (3) 중요 창작시 작품 목록
- (4) 중요 창작 회곡 작품 목록

### (1) 중국 동북 3성 조선족 문예활동 약사

- 1949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 공산당의 민족정책에 따라 걸림성 흑룡강성 요녕성에 민족자치구역이 설정됨
- 1951년 4월 연변문학예술계연합회 준비위원회를 결성하고 한글 문예지 「연변문예」의 간행에 착수함
- 1953년 7월 제 1 차 연변문학예술 대표회의를 소집하여 연변조선족자치주 문학예술계연합회를 출범시킴  
여기에는 가담한 문인은 이옥·김창걸·채택룡·김창석·홍성도·김례삼·김태희·임효원·최수봉·이홍규·황봉룡·최정연·백남표·김학철·정길운 등이며, 뒤에 이근전·김철·김성희·이행복·윤광주·김태갑 등이 새로이 등장함.
- 1956년 8월 중국작가협회 연변분회 설립됨.  
연변분회의 산하에 창작위원회, 구전문학위원회, 번역위원회, 간행물위원회를 두고 월간 문예지 「아리랑」을 간행함.
- 1956년 연변연극단 창설.
- 1957년 반우파투쟁, 1958년의 대약진운동, 민족정풍운동, 1959년의 반우경투쟁 등에 의해 조선족 문예활동이 침체에 빠짐.
- 1966년 5월부터 문화대혁명 일어남.
- 1966년 강청, 임표 등의 4인방에 의해 「부대문예사업 좌담기요」가 발표되고, 이에 따라 문예운동에 탄압이 가해져, 조선족의 민족문화운동은 일체 금지됨.
- 1971년 이후 4인방의 문예정책에 대한 비판이 일기 시작함.
- 1974년 「연변문예」 복간됨

- 1976년 10월 4인방이 숙청되고 문화대혁명은 종결됨.
- 1978년 10월 중국작가협회 연변분회가 재건됨.
- 1979년 2월 연변문학예술연구소 3명의 회원을 가진 단체로 성장함.
- 현재 「연변문예」, 「아리랑」, 「문학과 예술」 등의 잡지가 간행되고 있으며, 지역별로 「장백산」(통화지구, 격월간), 「도라지」(길림지구, 격월간), 「북두성」(장춘지구, 격월간), 「갈매기」(심양지구, 격월간) 등이 간행되어 조선족 문예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음.

## (2) 조선족 중요 창작 소설 목록

- 1950 김창걸 「새로운 마을」, 백호연 「꽃은 새 사랑 속에서」
- 1952 김학철 단편집 「군공예달」
- 1953 김학철 「새 집 드는 날」, 합동소설집 「뿌리박은 터」
- 1954 이근전 「파일꽃 펠 무렵」, 김학철 「해탄강아 말하라」, 합동소설집 「세천이 벌」  
합동소설집 「새 집 드는 날」
- 1956 원시희 「최선생」, 마상욱 「간호장」, 현룡순 「누님」, 이근전 산문집 「파일꽃 펠 무렵」
- 1957 김학철 「번영」
- 1958 합동소설집 「빨간 다리야」, 김병기 「쇠돌골의 변천」, 안창욱 「병상우의 해연」
- 1959 합동산문집 「형제」, 합동소설집 「병상에 편 꽃송이」, 박태하 「사막에서의 조난」
- 1960 이근전 「호랑이」
- 1961 윤금철 「숙질간」
- 1962 합동소설집 「봄날 이야기」, 이근전 산문집 「연변산기」, 허해룡 「혈연」, 이근전 「범마위」
- 1965 차룡순 「약초 캐는 사람들」
- 1966~1978 (문화대혁명기)
- 1979 합동소설집 「단편소설집」, 임원춘 「꽃노을」
- 1980 합동소설집 「딸의 고민」, 합동소설집 「사람에 대한 이야기」, 정세봉 「하고 싶던 말」, 이원길 「배움의 길」, 김용식 「규중비사」, 류원무 「숲속의 우등불」
- 1981 합동소설집 「불타는 백사장」, 서광억 「가정문제」, 한원국 「잊을 수 없는 사람」  
최택청 「도강 전야」, 윤일산 「어둠을 뚫고」
- 1982 류원무 「비단 이불」, 김창걸 「김창걸 단편집」, 이근전 「고난의 연대」
- 1983 임원춘 「몽당치마」, 김관웅 「아, 젤레꽃」, 합동소설집 「군자란」, 고신일 「성녀」  
이만호 「공장장의 하루」
- 1984 윤립호 「호박꽃」, 임원춘 소설집 「몽당치마」, 김순기 「꿈에 본 얼굴」, 김근총  
「별무리」
- 1985 김학철 「짓밟힌 경조」, 정세봉 소설집 「하고 싶던 말」, 윤립호 소설집 「투사의  
슬픔」, 김관웅 소설집 「소설가의 안해」, 이원길 「한 당원의 자살」, 김훈 「청춘  
약전」, 고신일 「유정세월」
- 1986 류원무 소설집 「아 꿀샘」, 김훈 소설집 「청춘의 활무대」, 김양금 「언덕길」, 김  
학철 「격정시대」, 윤일산 「포효하는 목단강」, 김운룡 「새벽의 메아리」

### (3) 조선족 중요 창작시 작품 목록

- 1950 임효원 「이 손에 총을 주소」
- 1954 합동시집 「해란강」, 설인 「조국은 그대 심장으로 하여」, 이옥 「연변찬사」
- 1955 김철 「지경돌」, 윤광주 「다시 만나자 고향아」, 김옹준 「령을 넘으며」, 서현 「청송 두 그루」
- 1956 이옥 「어머니와 얘기」, 조용남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 이옥 「새벽의 고조」
- 1957 김철 시집 「변강의 마음」, 이옥 시집 「고향 사람들」, 이옥 시집 「연변의 노래」  
김예삼 「생활」, 임효원 시집 「전달레」
- 1958 김철 시집 「동풍 만리」, 임효원 「최신 지도를 그리는 이들께」, 김성휘 「고동하  
시초」, 김철 「산촌의 어머니」
- 1959 합동시집 「들끓는 변강」
- 1961 합동시집 「아침은 찬란하여 타」, 이상각 「승선시초」
- 1962 합동시집 「푸른 잎」, 송정환 「조국」, 김성휘 「고향 사람들」, 박화 「쪽박새」,  
김태갑 「옥중의 노래」, 김창석 「열사비」
- 1964 합동시집 「연변시집」
- 1966~1978 문화대혁명
- 1979 합동시집 「시선집」, 합동시집 「변강의 무지개」, 김철 시집 「산향길」, 김철 시  
집 「내 고향의 금물결」, 임효원 시집 「어머니 품이여」, 김철 「동틀 무렵」, 김  
성휘 「장백산아 이야기 하라」, 송정환 「원혼이 된 시인에게」, 한춘 「그때 우리  
는 어찌하여」, 김성휘 「먹갈나무 아래서」
- 1980 이옥 시집 「이옥 시선집」, 이상각 시집 「샘물이 흐른다」, 이상각 「만무파원 설  
례인다」, 김동진 「거리의 울음소리」, 임효원 「북녘의 서정」, 이상각 「암록강 물  
결따라」
- 1981 김경석 시집 「파란 수건」, 이삼월 시집 「황금 가을」, 김학 「땀의 노래」
- 1982 합동시집 「서정시집」, 임효원 시집 「마음의 지평선」, 김태갑 시집 「고향길」,  
송정환 시집 「풀피리」, 박화 시집 「붓나무」, 이옥 「아침」
- 1983 합동시집 「태양에로 가는 길」, 설인시집 「봄은 어디에」, 조룡남 「해빙기의 강  
변에서」, 정몽호 「아버지의 말자국」, 허홍식 「나의 노래」
- 1984 김성휘 「나의 거리」, 이삼월 「농민들은 떠난다」, 박화 「태양이 웃는 거리」
- 1985 합동시집 「인간 세상」, 김성휘 시집 「금잔디」, 이상각 시집 「사랑의 꽃마구니」  
김옹준 「사랑의 애가」
- 1986 김창석 시집 「꽃수레」, 김파 시집 「흰 듯」, 남영전 「할머니」

### (4) 조선족 중요 창작 희곡작품 목록

- 김태희 「우리 조장동무」(1950)
- 최수봉 「농민학교로 가는 길」(1953)
- 최정연 「완두씨」(1954)
- 황봉룡 「새각씨」(1954)
- 윤지현 「합작사는 내 집이다」(1956)

황봉룡 · 박영일 「장백의 아들」(1959)

박웅조 · 홍성도 「눈속에 편 꽃」(1980)

최정연 「해토 무렵」(1981)

김훈 「두부장사」(1981)

김훈 「시름거리 웃음거리」(1982)